

제11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학교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팀명	섬강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안전지킴이>
작품명	작은 행동, 그러나 큰 변화! 우리가 바꾸는 안전한 세상.

1. ※ 안전지도 활동을 통해 만든 지도의 사진, 그림, 캡처 등

1. 교내 학교 안전 지도



2. 교외 학교 안전 지도



제11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학교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2. ※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과정
 ※ 개선방안을 공유하거나 제시하여 환류 또는 실제 개선되는 과정
 ※ 위험 요소를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개선한 사례

1. 교내 위험 요인 탐색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에 별로 위험한 게 없어요.”

교내의 위험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머리를 감싸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내뱉은 말이였다. **사실 안전사고라는 건 안전하다는 믿음 속에서 발생한다.** “학교는 대체로 안전한 공간이 맞아. 만약 학생들이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생활한다면 안전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항상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런 상황에서도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해.**”

한 시간의 시간 동안 학생들은 학교 이곳저곳을 열심히 뛰어다녔다. 사실 학생들이 잘 찾지 못하면 알려주려고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대견하게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 요소도 찾아왔다.

2. 위험 요소 요인 분석 및 해결 방안 탐색



<위험 요소 개선 방안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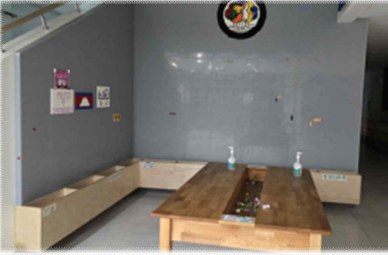
<구글시트를 활용한 의견 취합>

학생들이 찾은 위험 요소 중에 파손과 관련된 위험 요소는 해결하기 쉽다. 하지만 신발장 혼잡으로 인한 위험 요소나 학교 울타리 밑 개구멍, 레고 놀이터 근처 떨어진 레고로 인한 위험 요소의 경우에는 명쾌한 해결 방안이 떠오르지 않고 애매한 해결 방안만 떠올랐다.

레고 놀이터는 교무실 앞 계단 옆 벽면을 레고 판과 레고 블록으로 꾸며놓은 공간인데 저학년 아이들 사이에 아주 인기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항상 바닥에는 레

제11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학교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고 블록들이 떨어져 있었고 지나가는 학생들은 장난삼아 혹은 실수로 레고 블록을 발로 차고 다녀 레고 블록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농담 삼아 레고 지뢰밭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래 그럼 이 의견들 모두 다음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만나면 이야기해 보자. 이런 문제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도 들어서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3. 위험 요소 개선을 위한 실천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학생들은 위험 요소 발굴 활동에서 주로 시설 위주로 찾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위험 요소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태도이다. 시설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안전하게 시설을 설계한다고 한들 학생들이 복도에서 전력 질주를 하고 계단을 뛰어내리며 교실 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거나 창문에 매달리고 교실에서 레슬링을 한다면 안전사고 발생을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섬강초의 학생자치회 학생으로서 학교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섬강초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행동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 “안전 캠페인”>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피켓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사흘간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행동 “학교 안전 OX 퀴즈 대회”>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 OX 퀴즈 대회를 기획하였다. 대의원 학생들

제11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학교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이 직접 문제와 PPT를 만들었다. 대의원들이 역할을 나누어 사회자, PPT 조작, 안전요원, 상품배부, 팻말, 중앙라이너 담당 등 행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대의원들이 진행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 행동 “학생 참여 안전 부스 운영”>

- 1)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협하는 우리들의 위험천만한 모습들!” 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우수 의견 전시
- 2) “학생들이 직접 찾는 학교 위험 요소” 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우수 의견 전시
- 3) “안전제일”, “학교안전” 을 제시어로 하는 안전 사행시 짓기 및 우수작 전시
- 4) 안전 픽토그램 그리기, 교통안전 표지판 만들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번째 행동 “학교 안전 지도 제작 및 전시”>

위험 요소 발굴 활동을 통해 대의원 학생들은 학교 위험 요소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하지만 대의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이 노력하여 찾아낸 위험 요소에 대해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결과물을 지도로 제작하고 게시판에 전시하여 교내의 학생들에게 모두 공유하였다.

제11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학교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
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학교는 할 수 있는 일”

학생 발표 위험 요소 하나씩 위험한 이유와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토의한 개선 방법을 이야기하면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그것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파손 건물은 실장님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리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건은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께 협조를 구하여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가장 먼저 학교 울타리 개구멍 문제에 대해서 교감 선생님께서는 공원 쪽 출입구를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냈지만 실장님과 교장선생님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인원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교감 선생님은 이미 지금도 학교 정문과 주차장 출입구 모두 개방되어 있어 학교보안관 혼자 통제할 수 없고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공원 쪽 출입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학교로 들어올 수 있기에 굳이 공원 쪽 출입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반론하였다. 결국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 추후 교직원 회의 때 안전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그 과정 동안 학생들은 어른들의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결정되지 않고 민주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정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되었다.**

쉽게 해결하지 못한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레고 놀이터 문제였다. 레고 놀이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엔 학생들은 그냥 듣기만 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레고보관함의 사이즈를 키운다거나 높게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대의원들은 안전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바닥에 레고 블록이 항상 떨어져 있기에 안전교육만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었고 어른들은 레고 통을 넓게 만들거나 높이면 주요 사용자인 저학년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진다는 의견과 관련 공사를 하더라도 크게 개선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내었다. 결국 레고 놀이터 벽면에 레고 놀이터 사용 규칙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주요 사용자인 2층에 위치한 학년인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제11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학교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학교도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

교내에서는 위험 요인 발굴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교외 위험 요소 발굴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닌 곳을 위주로, 도로 교통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했다.



횡단보도 인도 파손 상가 앞 불법주차
<섬강초 대의원들이 찾은 학교 밖 위험요소>

학생들이 찾아온 위험 요소로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사실 토의할 것도 없었다. 학교 밖 위험 요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고 교장선생님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 방법은 시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뿐이었다. 이 모든 것을 민원을 넣을 수 없으니, 학생들이 찾은 위험 요소 중에 딱 세 가지만 골라서 민원을 넣기로 하였다. 아이들에게 번호표를 뽑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시청에 방문할 때 지역 시의원님께 미리 연락하여 혹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시의원님은 흔쾌히 허락하여 대의원과 시의원님의 만남도 성사되었다.



<시청 방문 기념 단체 사진>



<시의회 방문 기념 단체 사진>

제11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학교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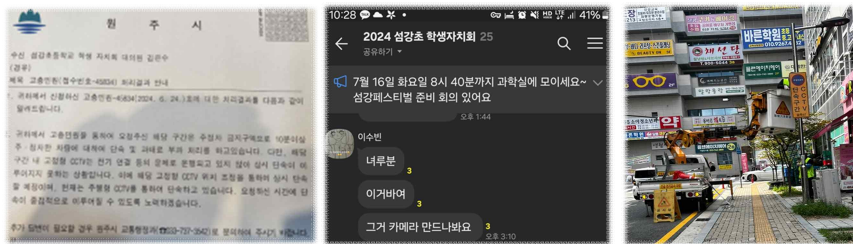
시청을 다녀온 다음 날 학교에서 등하굣길 점검단 회의가 열렸다. 이전에 공문을 미리 보아서 담당 선생님께 학생들이 참여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허락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등하굣길 점검단은 시청 도로교통과 공무원, 경찰, 학부모, 교장선생님이 참여하였는데 그곳에서 학교 밖 위험 요소 발굴 활동을 한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들이 시청 민원에 포함되지 못한 여러 가지 도로교통 위험 요인을 개선해 달라 요청하였다.



<등하굣길 점검단 회의 참석>

4. 작은 행동, 그러나 큰 변화! 우리가 바꾸는 안전한 세상.

시청으로부터 전화와 공문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넣은 세 가지 민원에 대해서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소식이었다. 인도를 넓혀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8월 중에 관련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담당 공무원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상가 인근 불법주차 문제와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한 시간(12시~21시)에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이 왔다. 그리고 얼마 뒤 카톡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신난 친구의 문자가 올라왔다.



<민원에 대한 원주시의 답변>

<CCTV 작업 중인 모습과 이를 목격한 대의원의 카톡>

활동을 마무리하는 학생자치회 회의 시간, 학생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활동했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려주었다. 학교 안 위험 요인이 개선된 것들, 그리고 학교 밖 위험 요인이 개선된 것들을 설명할 때마다 학생들은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진짜 해냈

제11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학교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구나! 라는 표정으로 신이 난 표정이었다. 학생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으면 한다. 내가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나를 둘러싼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것 말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잊지 말았으면 한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넓어지게 될 인도를 보며 10년 뒤에도 ‘그래, 내가 바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기를.

ps. 아이들이 만든 안전한 세상 속에서 더욱 안전한 삶을 살길 바라며.